

사회

올림픽 경기 시청... 학교선 '구벽구벽' 高3 진학지도 골머리

축구 등 주로 새벽 열려 잠 못자 공부·건강 비상

광주지역 고교 3년생인 박모(17)군은 요즘 방과후 수업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이 꾸중하는 일이 잦다. 시차 때문에 꼭두새벽에 방송되는 런던올림픽 주요 경기를 시청하느라 잠을 설치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감성적인 청소년들이 이른바 '멘붕'(멘탈 붕괴) 사태를 호소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고3인 정모(18)군은 "요즘 올림픽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기 일수"라며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순간의 유혹을 떨치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뇌물 교육공무원 무더기 실형

광주지법, 뇌물 추정도

법원이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전전직 고위 교육공무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받은 뇌물을 모두 추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8일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3) 전 광주 동부교육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040만원을 선고했다.

원에서 1700만원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100만~1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모 건설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농작물 12ha 말라죽고 가축 14만마리 폐사

폭염에 전남 농축산 피해 잇따라

저수율 62%로 뚝 떨어져

19일간 폭염 특보가 이어진 전남지역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농축산분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농작물 12ha와 가축 13만9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가뭄으로 제때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 12일 모를 심었지만 이후 35℃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는 인근의 돌병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은 돌병이 폭염에 달궈져 버가 녹아버린 것이다.

폭염은 축산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 등지의 농가 8곳에서 닭 2만5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8일 현재 영광 9곳 6만9600마리, 함평 5곳 4만마리, 보성 2곳 3500마리, 신안 1곳 15마리의 닭, 오리, 돼지, 한우가 폐사했다.

전남도는 스프링클러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비닐하우스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폭염대비 농작물 관리에 나서고 있다. 폭염으로 저수지도 말라가고 있다. 전남지역 3224곳의 저수율은 62.5%로 지난해에 비해 17%포인트나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폭염으로 닭 2000여마리가 폐사한 나주시 봉황면 한 양계장 주인이 8일 오후 축사 내 기온이 올라가자 더위 때문에 지쳐 울츠러든 닭들을 깨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20억대 기상관측선 납품 로비의혹 수사

檢, 목포 고려조선·기상청 간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전남지역 한 중소 조선업체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 기상청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8일 목포 소재 조선업체 고려조선과 이 회사 대표 전모씨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고려중공업 등 관계사 3~4곳을 전남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상청이 관측선을 제때 납품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당시 기상청장 J씨 등 위간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려조선 경영진이 선박을 납품하면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위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고려조선은 2010년 가을까지 관측선을 납품하도록 계약했으나 기일을 맞추지 못해 16억6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 기상청은 고려조선이 이를 내지 않자 고려조선측에 지급해야 할 16억9000만원 상당의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상청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기상청 일부 고위간부에게 금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고려조선이 목포 소재 업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원침 (8627) 김장두



30대 여자 안고 투신

지난 7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에 사는 A(여·36)씨가 자신의 8살 아들을 안고 투신해 숨겨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자고 있던 아들을 안고 뛰어 내린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아들은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

5억 시가 조폭, 30만원 빼앗다 벌미

○서울 송파경찰은 모델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강탈한 혐의(강도)로 '광주총장OB파' 조직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의 한 모텔에서 혼자 근무하던 카운터 종업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김씨는 지난해 공사 하청을 받아준다는 건설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시기와 폭력 등 혐의로 총 3번의 징명수배를 받고 1년 6개월 간 고시원이나 모텔 등지를 떠돌다가 최근 광주의 한 PC방에서 체포. /연합뉴스



트레일러 대 형 1,2종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교재무료 배부.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